

장성군, 19일 ‘성장장성 록 페스티벌’ 연다

YB 밴드·카디·하랑·이글이글 출연 관심 고조

장성군이 오는 19일 오후 6시 장성군청 옆 특설무대에서 ‘성장장성 록 페스티벌(이하 성장록페)’을 연다.

‘성장록페’는 장성군이 작정하고 제대로 기획한 최초의 ‘록 페스티벌’이다. 이전에도 ‘로커’들이 무대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성장록페’처럼 모든 출연진이 ‘록 밴드’인 적은 없었다.

공연을 이끌어갈 밴드는 ‘와이비(YB)’다. 1994년 데뷔앨범 발매 이래 30년 넘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록의 대들보’다. 2002년 월드컵 응원곡의 열정을 담은 ‘오필승 코리아’를, 2011년에는 ‘힐수엠티고래’를 발매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전했다. 올해 2월 발매한 앨범 ‘오디세이’에선 밴드 최초로 헤비메탈 장르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슈퍼밴드2’ 3위에 빛나는 ‘카디(KARDI)’의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보컬, 기타, 베이스, 거문고의 4인조로 구성된 개성 넘치는 밴드다. 밴드 이름인 ‘카디(KARDI)’는 심장을 뜻하는 접두사 카디(cardi)에서 착안했다. 한국적인 색채를 담아 가슴 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

‘성장록페’가 뜻깊은 이유는 또 있다. 장성 청소년들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한다.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하랑’ 밴드팀과 장성고등학교 밴드 ‘이글이글’이 와이비(YB), 카디와 같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록페’를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의 꿈을 따스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함평,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함평군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8일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일부터 18일 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등 자가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자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 예방에 필요한 실천 방법을 배우는 한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건강증진 효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함평군은 라텍스 밴드를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과 아로마 발 마사지 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도 함께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흥, 6년 만에 인구 증가세 전환... “인구정책 결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5년간 1320만원 지원 등 인구 유입

농산어촌유학마을 10세대·댐유역 마을살리기 6세대 조성

장흥군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인구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6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장흥군은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 3월말 3만4319명으로 6년 3개월만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장흥군은 노인인구가 45%나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매월 출생아 수는 10명 안팎인 반면 사망자는 60여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졸업 시 도시로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도 인구감소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장흥군은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3월말 전월 대비 인구가 8



명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장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입가구 희망주거비 5년간 1320만원(2년간 월30만원, 2~4년차까지 20만원, 5년차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8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300만원~200만원 지원, 2025년부터 1~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학교살리기를 통한 인구 유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장흥중학교장은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학교를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학습분위기를 바꾸는 한편, 지역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철원 담양군수 “동행하는 군수 될 것”...첫 간부회의 주제

정철원 담양군수가 지난 7일 오전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담양, 소통과 화합으로 더 행복한 담양’을 위해 5대 분야 핵심 공약사항들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 군수는 먼저 선거업무와 주말 열린 제10회 주월산 벚꽃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했다.

정 군수는 “군립하는 군수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군수’가 되겠다”라며 “군민과 약속했던 5대 분야 핵심 공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시설 점검 및 프로그램 정비 등 철저한 축제 준비와 함께 ‘머물다 가는 축제’

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주문했다.

또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영농철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하며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군수는 “불안정한 정국에 더해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군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화순,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신속집행 분야 1위... 상사업비 2000만 원 확보

화순군은 8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화순군은 ‘24

년 12월부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단체장이 주재하는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했다.

또한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1분기 신속집행 목표 대비 120.90%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 신속집행 분야에

서 1위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화순군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전 직원이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1분기 동안 함께 노력해 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영광 구 용문당과 용무당’ 전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고시

영광군은 지난 3월 ‘영광 구 용문당과 용무당’이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및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용문당과 용무당은 고종 5년(1868) 경복궁 후원지역(현 청와대 자리)에 증건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훼손된 경복궁의 전각 중 온전히 이력이 확인되는 몇 안 되는 건축물로, 조선 후기 궁궐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함께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용문당은 과거 시험장, 용무당은



군사들의 열병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용무당은 무술 훈련 시 국왕이 직접 시범사열을 받을 때와 고위관리들이 활쏘기를 할 때 사용된 이력도 확인된다.

이 두 곳은 1929년 5월 일제에 의해



영광 구 용문당(왼쪽) 용무당.

서 훼손되고 일본인 점로 활용되다가 1946년에 원불교에서 인수하여 교당과 생활관으로 활용되었고, 2007년 현재 위치한 원불교 영산성지(용문당), 우리삶속당박물관(용무당)으로 이전·복원됐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1분기 신속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전남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

장흥군은 1분기 신속집행 1182억원(101.4%), 소비투자 992억원(146.3%)으로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며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장흥군의 노력의 결과다.

이런 노력으로 2025년 1분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 기

관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상사업비도 받는다.

장흥군은 각종 공사, 용역 등의 발주와 동시에 선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당겨집행 등 세부사업별로 구체적 집행 계획을 수립해 매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집행을 제고에 매진했다.

2분기에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남

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2배로 올리고, 가맹점을 적극 확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3월 말 농어민 공익수당도 48억 원 전액을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2분기에도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